주 일 예 배

오전11시 —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천사 찬송하기를(126장) 천사들의 노래가(125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113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누가복음 2:8-14	인 도 자
설 교	성탄의 표적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123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권오준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선교사역	
양육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12월 24일 제21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의 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2: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첫 성탄의 소식이었습니다. 첫 성탄의 소식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전하여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메시야의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아마도 메시야의 탄생의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과 같은 사람 이였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많은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굳이 변화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권리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야가 오신다는 사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메시야가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의 교회시스템을 통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아무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교회라는 시스템에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교회의 변화는 자신들도 무언가 권리와 권세를 가지길 원하는 기득권의 변화이지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변화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변화 아니 이 표현보다는 교회의 회복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남이 가진 것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가진 것을 권력이나 힘을 빼앗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성탄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탄의 표적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의 탄생을 증명하는 표적이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언급한 표적은 표적치고는 정말 이상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표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표적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구원하는 게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모습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합니다. 영광 받고 지배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멸시받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셨고 교회는 이 뜻을 받들 때 비로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성탄의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야의 표적은 많은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크고 위대한 것에 힘 있고 권세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애 동안 고작 12명의 제자를 남기신 그것도 한 명의 제자에게는 배신당하신 예수님의 섬김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2000년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통해 성육신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탄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오늘도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 오늘 예배는 성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성탄일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으니 가족과 이웃을 섬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 송구영신 친교모임은 7시에 송구영신예배는 31일(주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4. 곽병선 집사님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5.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0.00	
감사헌금:	$385.00	
주일헌금:	$21.00	
특별헌금:	$10.00	**합 계: $406.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성탄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